

파업손실 눈덩이·신용도 타격... 경영위기 이어질까 우려 '초강수'

금호타이어, 직장 폐쇄 카드 왜

25일간 파업 매출손실 940억·1인당 손실 280만원
지역경제로 피해 확산... 대화 통해 최악 상황 막아야
광주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노사민정협의회 긴급 개최

“장기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6일 오전 7시를 기해 광주, 곡성, 평택공장에 대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는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든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꼽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월 13일부터 4일 간의 부분 파업, 21일간의 전면 파업 등 모두 25일 간의 ‘파업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이후 공장점거 파동 이후 가장 파업이며 이로 인한 직장폐쇄는 2009년, 2011년 이어 세번째이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추산한 매출 피해액은 940억원.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손실도 1인당 평균 280만원을 넘어섰다. 금호타이어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피해는 회사와 직원,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사측은 직장폐쇄 공고문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의한 정상적인 생산업무 방해행위를 배제하고, 회사 시설물 보호도 불거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원들의 안전과 회사의 생존을 위한 방어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이어진 잇단 파업으로 대외 이미지와 신용도에 타격을 입고 긴박한 경영 위기로 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 교섭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임금 인상안을 상향하고, 최대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등 최종안을



임금 협상 등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을 벌여온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응해 6일 오전 7시를 기해 광주, 곡성, 평택 공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사측이 버스 9대를 동원해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시했지만 노조는 일시금 지급액 상황과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며 사측안을 거부해 더 이상의 교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전날까지 이어진 제16차 본교섭에서 ▲일당 2950원 정액 인상(4.6% 인상) ▲임금피크제 2016년 시행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2015년 성과배분(20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무주택 용자금액 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진전된 안에 대해 전면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사를 밝혔고, 직장폐쇄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제안은 2016년 단계교섭 전까지 논의하되 합의 없이 법적으로 취업 규정을 변경해 임금피크제 근거를 만드는 기만적 행위”라며 “때문에 사측 안은 수용할 수 없고, 최고 결정권자인 박삼구 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

서라”고 밝혔다.

노조의 한 간부는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가 사실상 각하되자 노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최종안이라고 내밀며 직장폐쇄 명분 쌓기, 일종의 ‘회사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직장폐쇄와 관련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업체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광주고용청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데 이어 7일 오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도 긴급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안을 수용하고, 사측도 직장폐쇄를 철회해 지역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력단절 없는 여성 일자리 발굴 절실”

광주상의 광주고용포럼 여성분과 토론회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상의 제공>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조건 향상과 여성 친화적 일자리 발굴이 절실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광주고용포럼 여성분과 토론회를 개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인 김영옥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30대 고학력여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적 이유로 결론짓기 보다는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고용의 안정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광주시 등 지자체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

한 대외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1년 조례제정 이후의 관련시책에 대한 평가, 광주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일자리 변화 추이, 서울시의 에너지컨설팅센터와 같이 광주시에 특화해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찾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전진숙 광주시의회 위원, 김경례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백희정 광주여성단체 대표, 황인자 광주새로알라지지원부장, 이병훈 노무사 등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자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강화와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대체인력 제공방안,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는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조건 개선 등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김한 광은회장 연봉 20% 반납 신규채용 확대

BNK·DGB회장도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등 3개 지방은행금융그룹 회장들이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해 그룹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지주회사에 따르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일 협의를 통해 시중은행지주사 회장들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연봉반납

취지에 공감, 이러한 분위기를 국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개 지방은행금융그룹은 시중은행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이달부터 연봉을 반납할 예정이며, 김한은 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고용사정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3개 지방은행금융그룹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방안도 대해서는 지주

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같이 지방은행금융그룹의 회장 등이 합심해 마련한 연봉반납 재원은 이들 20여개 계열사의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수도권 출신보다 채용난이 심한 지방지역 출신자(고졸, 경력단절여성 등 포함)를 우선해 채용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K그룹, 하반기 1500명 공채

오늘부터 원서 접수

SK그룹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7일부터 시작한다.

SK그룹이 공채와 수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은 총 15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300명보다 15%가 증가한 규모다.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은 최태원 회장

과 김창근 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SK는 설명했다. SK의 대졸 신입공채는 7일부터 18일까지 채용사이트(www.skcareers.com)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 및 필기전형(SK 종합역량검사), 면접을 거쳐 1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6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4	6	11 17 28 16
등 위	당첨(금)인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96,901,063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997,895	47
3	5개 숫자일치	1,231,074	1,947
4	4개 숫자일치	50,000	93,631
5	3개 숫자일치	5,000	1,493,940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이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빌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급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1998㎡의 선착순(중·후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임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개로, 목련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상급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즉시 입주 대금 70% 가능, 선착순 중·후 지정
- 좋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남·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